

## 損窩 崔錫恒의 卽興詩 연구 -‘口號’류를 중심으로-

김효정\*

### I. 서론

損窩 崔錫恒(1654~1724)는 遲川 崔鳴吉(1586~1647)의 손자로 숙종과 경종 대 소론을 이끌며, 형 明谷 崔錫鼎(1646~1715)과 함께 정승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손와는 1680년(숙종 6) 27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해 출사한 이후 71세로 운명하기까지 45년간 관직에 있었으며, 柳鳳輝(1659~1727)·李光佐(1674~1740)·趙泰耆(1660~1723)와 함께 경종 대의 소론 4대신으로 불린 소론계열의 핵심 인물이었다. 손와는 출사한 이후 승문원 권지부정자를 시작으로 관서안검어사·호서경시관·옥천군수·평안도 관찰사·경상도 관찰사·개성 유수·강화 유수 등의 지방관과 형조판서·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721년 경종이 즉위한 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사

손와가 관직에 있었던 숙종 대와 경종 대는 남인계열과 서인계열의 당쟁이 치열했고, 서인계열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어 당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손와는 경종이 왕세제인 연잉군(훗날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였을 때 한밤중에 입궐하여 제일 먼저 경종을 講對하고, 대리청정의 불가함을 역설하여 왕명을 거두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sup>1)</sup> 1721년 辛壬士禱)가 일어났을 당시 소론계열을 주도하여 노론계열을 몰아내고 소론계열이 정권을 잡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종 사후 노론계열이 지지했던 영조가 즉위하자 손와는 신임사화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사후에 삭탈관작 되었고, 고종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직의 추탈과 복직이 반복되는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

이와 같은 생애 때문인지 손와에 대한 평가는 문인보다 주로 행정가·정치가로서의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up>3)</sup> 손와의 시문에 대한 평가와 문인으로서의 면모는 그의 행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손와의 행장에는 손와가 문학으로 성대한 명성이 있는 최석정과 최창대 사이에 있으면서도 시문을 뽐내

- 1) 『景宗實錄』卷5, 경종 1년(1721년), 10월 10일(정묘), “亦隨錫亓入侍. 錫亓曰: “自古帝王, 有如此處分, 皆由於人主春秋壽考, 或在位已久, 勞瘁成疾, 或身有篤疾, 積年沈痼, 萬不得已而爲之. 今殿下, 春秋纔三十, 在位未一年. 若以疾病, 則臣待罪藥院. 每見問安之批, 以無事爲教. 所謂不安之節, 不過痰火引飲, 小便頻數. 此豈沈痼之疾乎. 無此三件事, 而卽位元年, 猝下此教者, 何也. 先王使殿下聽政, 付之以無疆休恤之業者, 欲其勤勵國事, 以做至治. 今殿下卽位之初, 付諸世弟, 豈不有乖於先王遺意乎. 殿下疾病如先王, 春秋如先王, 則今日之舉, 固無足怪, 而以鼎盛之年, 無形顯之疾, 而爲此舉, 臣等所以憂皇國極者也. 請加三思, 亟收成命.”
- 2) 신임사화는 1721년(경종 1) 辛丑年에서 1722년 壬寅年에 걸쳐 일어난 사화로 경종 즉위 이후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 문제와 대리청정을 두고 노론과 소론이 정쟁을 벌였던 사건이다. 33세에 즉위한 경종이 몸이 약하고 후사가 없자 노론의 4대신인 영의정 金昌集, 좌의정 李健命, 영종추부사 李頤命, 판중추부사 趙泰采가 중심이 되어 경종의 동생인 延昞君(훗날 영조)을 왕세자로 세울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이후 노론은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건의하였고, 경종은 이를 수락하여 대리청정을 명하였다가 소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22년 3월 睦虎龍(1684~1724)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노론이 살해하려 했다는 고변을 올리자 소론은 이를 기화로 노론 4대신을 사사하고 수백 명의 노론측 인사를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하였다.
- 3) 『景宗實錄』卷14, 경종 4년(1724년), 2월 24일(무진). “丹癯矮小, 而精神內蘊. 按外藩, 以才局稱, 平生處事, 不露主角. 常戒後進曰, 毋以細事與人相較. 如此則庸鄙頓質, 不能做國事也.”

거나 과시하지 않았고, 疏章과 전별시·만시가 인구에 회자되어 文名이 있었다<sup>4)</sup>고 하였으며, 상소문은 명쾌하고 통창하며, 사리가 모두 지극하고 시가 유려하고 정밀하였다<sup>5)</sup>고 하였다. 또한 최석정은 손와가 지은 시의 “거문고와 책으로 행장 꾸리니 나그네 인연을 따르고, 구름의 생애 갈매기의 뜻을 얻었네 [琴書行李隨緣客, 雲水生涯得意鷗]”<sup>6)</sup> 라는 시구를 보고 “음운이 유창하고 의상이 막히는 데가 없어 참으로 통달한 자의 시이다.”라고 하며 감탄하였다.<sup>7)</sup> 이와 같은 평가들을 통해 손와의 문명이 상당히 높았으며, 시에도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손와에 대한 연구는 경종이 왕세제인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명하자 이를 거두어줄 것을 읍소하며 창한 ‘講對’<sup>8)</sup>에 관한 것과 聯句詩에 관한 연구<sup>9)</sup> 2편이 전부이다. 손와의 연구시 연구는 손와의 시문학에 관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루어진 작품의 수가 적고, 상대방과 번갈아 짓는 연구시의 특성상 손와의 시세계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손와의 문집 『損窩遺稿』는 原集 13권, 記實 합 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up>10)</sup> 권1~5권에 675제 824수의 시<sup>11)</sup>가 시체별·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어

- 4) 『損窩遺稿』, 「損窩先生實記」, 「行狀」, 崔昌億, “文貞公方以文章服一世, 而其子副學公有盛名, 文學之士, 咸趨仰之. 公居其間, 未嘗矜誇, 而疏章之作, 騁挽之篇, 往往膾炙人口, 文苑之望, 世皆推許”
- 5) 『損窩遺稿』, 「損窩先生實記」, 「行狀」, 崔昌億, “奏箏明暢, 辭理俱到, 詩亦流麗精緻”
- 6) 『損窩遺稿』卷2, <驪江, 敬次仲氏詩>.
- 7) 『損窩遺稿』, 「損窩先生實記」, 「行狀」, 崔昌億, “己未中進士, 完陵公時守清風. 公省觀舟行, 有詩曰: ‘琴書行李隨緣客, 雲水生涯得意鷗’ 文貞公見之歎曰: ‘音韻流暢, 意象無滯礙, 真達者之詩也.’”
- 8) 윤재환 (2020). 損窩 崔錫恒 講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1.
- 9) 유명석 (2021). 손와(損窩) 최석형(崔錫恒)의 연구시(聯句詩) 연구(研究) -시회(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8-1.
- 10) 현전하는 『손와유고』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D3B-235)과 규장각 소장본(古3428-121) 2종이다. 2종 모두 原集 13권, 紀實 합 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편차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손와유고』의 저본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11) 『손와유고』에 현전하는 시는 675제 824수로 『손와유고』에 수록된 최창대의 시 10제 22수를 제외한 것이다. 『손와유고』는 권1에 칠언절구와 칠언배율, 권2-4에는 칠언율시, 권5에는 오

시세계와 시적 역량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와의 시문학에 관한 연구가 1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손와 사후 노론계열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문집이나 신도비를 남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점,<sup>12)</sup> 그리고 자손들이 영락하여 손와의 문집이 제대로 간행되지 못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으로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어 문인으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손와의 시문학 세계를 살피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의 卽興詩를 고찰하고자 한다. 손와는 자주 주변의 산수와 명승지를 탐방하고 다수의 시를 지었는데, 특히 자연을 보며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흥을 즉석에서 읊은 즉흥시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어 주목을 요한다.

즉흥시는 시흥을 느낀 현장에서 보고 듣거나 느낀 감정을 卽自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 시 형식으로, 오랜 시간의 彫琢이나 鍊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창작해야 하는 특성을 지녔으므로 작가의 정서와 문학적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난다.<sup>13)</sup> 따라서 즉흥시를 통해 평소 작가가 생각하고 있던 내적 심상과 시적 역량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초고 없이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는 ‘口號’류<sup>14)</sup>는 즉흥시 가운데서도 즉흥성과 현장성이 가장 강한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내면에 잠재된 감정을 순간적으로

언이 시체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권별로 수록된 시수를 살펴보면 권1에는 48제 69수, 권2에는 204제 267수, 권3에 134제 156수, 권4에 212제 235수, 권5에 77제 97수(<大慈山房占韻變賦>는 시제만 남아있고, 본문은 결실되어 있어 제외하였다.)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손와유고』 소제 시에는 自註와 編者註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작품의 창작 시기와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손와유고』 소제 최창대의 시 10제 22수에 대해서는 유진희(2021).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기행시 일고찰 -『손와유고(損窩遺稿)』 소제 곤륜시(昆侖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1, 민족어문학회. 참조

12) 『損窩遺稿』, 「損窩先生實記」, 「行狀」, 崔昌億, “遺命勿刊文集, 勿暨神道碑, 勿諱諡. 蓋素志然也.”

13) 윤재환 (2013). 龍洲 趙綱의 詩文學 世界 -卽興詩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54, 42.

14) 본 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口號’류는 ‘口號’·‘口占’·‘口呼’ 등의 시제를 지닌 즉흥시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진정성 있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sup>15)</sup>

즉흥시는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즉자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감정과 시작 능력을 살필 수 있는 장르이지만 지금까지 즉흥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sup>16)</sup>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제가 즉흥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 현장에서 즉자적으로 지었다고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즉흥시의 창작과 기록의 순간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흥시의 시제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짓지 않고 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감정을 기억했다가 후에 창작하거나 수정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호’류는 애초에 초고 없이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읊는다는 시제의 특성상 적어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호’류의 즉흥시는 창작 당시의 현장감과 작가가 느낀 순간적인 감정을 제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손와의 즉흥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호’류의 즉흥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손와의 즉흥시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손와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출발점이자 향후 손와의 시문학 세계를 확장하는 초석으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I. 손와 즉흥시의 개관

즉흥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興을 읊은 시로 현장에서 보고 듣거나 느낀 감정들을 즉자적으로 표출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특정 상황을 포

15) 이명희 (2020). 東里 李鼎相 漢詩 研究-이정귀 가계문학의 특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5, 40-41.

16) 즉흥시에 대한 연구는 윤재환 (2013). 龍洲 趙綱의 詩文學 世界-卽興詩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54와 유진희 (2019).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즉흥시(卽興詩) 연구(研究). 민족문화연구, 82. 2편에 불과하다.

착하여 시로 옮겨내기 때문에 현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17)</sup> 이 때문에 즉흥시의 제목에는 주로 바로 보거나 듣거나 한 일을 즉흥적으로 읊는 ‘卽事’, 이유 없이 혹은 생각나는 대로 시를 짓는 ‘謾成’, 생각나는 대로 혹은 심심해서, 뜻없이 짓는 ‘漫成’, 일정한 주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시를 읊조리는 ‘謾吟’·‘漫吟’,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읊은 ‘偶吟’ 등이 사용된다.<sup>18)</sup> 그리고 시를 지을 때 즉석에서 마음에 떠오른 것을 초고 없이 곧장 입으로 읊조리는 ‘口號’·‘口占’·‘口呼’ 등이 시제로 사용된다.

‘口號’는 글로 시를 쓰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곧장 입으로 읊조려 이룬 것을 표시한 것으로 南朝 梁나라의 簡文帝가 지은 <仰和嶠隸漸渝侯巡城口號>에서 비롯되었다.<sup>19)</sup> ‘口占’은 시를 지을 때, 초고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은 것을 말하고<sup>20)</sup> 즉석에서 입에서 부르는 대로 시를 짓고, 시를 짓는 순간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호’와 같다.<sup>21)</sup> ‘구호’와 ‘구점’은 초고하지 않고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을 입으로 읊조린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호’류는 입으로 읊조렸다는 의미로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시를 지었음을 강조하여,<sup>22)</sup> 현장성을 강조하는 시제라는 점에서 즉흥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즉흥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損齋遺稿』 소재 시 중 즉흥시의 시제를 담고 있는 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17) 유진희 (2019).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즉흥시(卽興詩) 연구(研究). 민족문화연구, 82, 215.

18) 윤재환 (2013). 앞의 논문, 43-45.

19) 口號: 古詩標題用語, 表示隨口吟成, 和“口占”相似, 始見於南朝梁簡文帝 <仰和嶠隸漸渝侯巡城口號> 詩, 後爲詩人襲用. 『漢語大詞典』

20) 口占: 謂作詩文不起草稿, 隨口而成. 『漢語大詞典』

21) 이석우 (1990). 月沙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76-77.

22) 유진희 (2019). 위의 논문, 216-217.

<표-1> 『損窩遺稿』 소재 즉흥시 목록

연번	권	제목	형식	시수	창작시기	비고
1	1	偶次石洲集中韻	칠언절구	1	1682년	
2	2	曹溪秋夜口號 庚申秋閏八月十三日	칠언율시	1	1680년	
3	2	觀水軒口占 清風東軒	칠언율시	1	1681년	
4	2	秋夜口號	칠언율시	1	1681년	
5	2	楊江舟中口占	칠언율시	1	1682년	
6	2	夜集口號 贈仙槎使君吳貫之	칠언율시	2	1683년	
7	2	楊山道中口號	칠언율시	1	1685년	한거 시기
8	2	暇日登曲城口號	칠언율시	1	1685년	한거 시기
9	2	渡猪灘口號	칠언율시	1	1686년	관서안검어사 시기
10	2	過箕城口占	칠언율시	1	1686년	관서안검어사 시기
11	2	渡大定津口占	칠언율시	1	1686년	관서안검어사 시기
12	2	行到乾川漫吟	칠언율시	1	1686년	관서안검어사 시기
13	2	昌州馬上口號	칠언율시	1	1686년	관서안검어사 시기
14	2	如海峴口占	칠언율시	1	1686년	관서안검어사 시기
15	2	沃川客館口占 贈主倅金汝榘	칠언율시	1	1689년	호서 경시관 시기
16	2	琴堂春夜口號	칠언율시	1	1689년	호서 경시관 시기
17	2	桂林幽居謾吟	칠언율시	1	미상	
18	2	秋盡日 登龍山口號	칠언율시	2	1689년	
19	3	碧瀾渡口呼	칠언율시	2	1690년	연안군수로 부임한 최석정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
20	3	胎安倉村舍口呼	칠언율시	1	1690년	연안군수로 부임한 최석정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
21	3	觀瀑臺口呼	칠언율시	2	1690년	연안군수로 부임한 최석정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
22	3	滯雨口占 三首	칠언율시	2	1691년	조카 최창대와 도봉산 일대를 유람함.
23	3	小陵宅 夜坐口號	칠언율시	2	1691년	고양군수 재임 시기
24	3	積城道中口號	칠언율시	1	1692년	감악산 제관 시기
25	3	大興寺漫吟	칠언율시	1	1692년	감악산 제관 시기
26	3	水會洞口號	칠언율시	1	1693년	고양군수 재임 시기
27	3	同湖伯洪九言夜話口號	칠언율시	1	1696년	옥천군수 재임 시기
28	3	綵霞亭偶吟	칠언율시	1	1697년	옥천군수 재임 시기

29	3	福泉菴夜坐口號 奉宗叔清安使君	칠언율시	1	1697년	옥천군수 재임 시기
30	3	夜飲口號 贈夏伯宗契	칠언율시	1	1697년	옥천군수 재임 시기
31	3	東鶴寺口占	칠언율시	1	1697년	옥천군수 재임 시기
32	3	直巡廳口占	칠언율시	1	1699년	
33	3	姨兄李延安 景益 錢席口號	칠언율시	1	1699년	
34	4	海雲臺口號	칠언율시	2	1702년	경상도관찰사 재임 시기
35	4	雨中口占	칠언율시	1	1703년	개성유수 재임 시기
36	4	降仙樓口號	칠언율시	1	1704년	평안도관찰사 재임 시기
37	4	香山萬瀑洞口號	칠언율시	2	1704년	평안도관찰사 재임 시기
38	4	酒席口號	칠언율시	1	1705년	평안도관찰사 재임 시기
39	4	淸潭觀瀑臺口占	칠언율시	1	1709년	
40	4	經理廳口占	칠언율시	1	1715년	경기도관찰사 재임 시기
41	4	白鷺洲口占	칠언율시	2	1715년	경기도관찰사 재임 시기
42	4	登堊城臺口占	칠언율시	2	1716년	강화유수 재임 시기
43	4	途中口占	칠언율시	1	1716년	강화유수 재임 시기
44	5	曹溪秋夜口號	오언율시	1	1680년	
45	5	馬上偶吟	오언율시	1	1689년	호서경시관 시절
46	5	西郊路中口占	오언율시	1	미상	
47	5	次韻口號	오언율시	2	1679년	
48	5	蕩春臺口號	오언율시	2	1697년	부수찬 재임 시기
48제 60수						

<표-1>은 『손와유고』에 수록된 즉흥시 목록이다. 손와의 즉흥시는 48제 60수<sup>23)</sup>로 파악되는데 이를 시제별로 살펴보면 ‘口號’ 류가 23제 30수, ‘口占’ 류가 16제 19수, ‘口呼’ 류가 3제 5수, ‘漫吟’ 류가 3제 3수, ‘偶吟’ 류가 3제 3수로 나타난다. 손와의 즉흥시는 ‘口號’·‘口占’·‘口呼’와 같은 ‘口號’ 류가 42제 54수로 즉흥시의 약 94%를 차지한다.

23) 48제 60수는 『손와유고』 소재 시 중 즉흥시의 시제인 卽事·偶吟·謾成·漫成·漫吟·謾吟·口號·口占·口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서 이를 시제에 담고 있는 시를 추출한 것이다. 손와의 즉흥시에는 卽事·謾成·漫成 등의 시제를 담고 있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손와유고』 권5에 수록된 <大慈山房占韻變>는 함께 동행했던 중형 최석정의 시만 남아있어 제외하였다.



‘구호’나 ‘구점’ 등은 대개 누군가가 시를 지을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은 작품에 붙이는 시제로, 초고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는다는 점에서 재치와 순발력이 요구되며,<sup>24)</sup> 여느 즉흥시보다 현장성과 즉흥성이 강한 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韻字나 韻書를 찾아보지 않고 즉석에서 짓는다는 점에서 詩作 능력이 뛰어나고 관련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짓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손와가 ‘구호’나 ‘구점’류의 즉흥시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시작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詩作이 일상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흥시의 시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卽事’이다. 그러나 손와의 즉흥시에는 ‘즉사’라는 시제가 1수도 보이지 않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사’는 바로 보거나 듣거나 한 일을 중점적으로 읊는 것인데 손와의 즉흥시에 ‘즉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과 현상보다는 시의 대상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손와의 조부인 최명길의 『遲川集』에는 37제 73수의 즉흥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卽事’와 ‘偶吟’ 등의 즉흥시가 대다수를 이루고 ‘口號’나 ‘口占’류는 1수도 없어 대조를 이룬다. 또한 중형인 최석정의 『明谷集』에 수록된 즉흥시는 26제 31수인데 그중 ‘口號’류는 7제에 불과하다. 또한 조카인 최창대의 『昆崙集』에 수록된 즉흥시는 3제 4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손와의 즉흥시는 양적인 면과 ‘구호’류의 즉흥시 창작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문학적 교류를 함께 했던 가계 내 문인들의 즉흥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손와의 즉흥시는 혼자 읊조리는 경우보다 혈연관계에 있는 중형 최석정과 조카 최창대, 그리고 吳道一(1645~1703), 徐宗泰(1652~1719), 洪受疇(1642~1704) 등 가까운 벗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지은 경우가 많다. 특히 최석정이나 최창대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창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들이

24) 이명희 (2014). 월사 이정구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160.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문학 동료로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손와의 즉흥시를 시 형식별로 분류하면 칠언절구 1수, 칠언율시 52수, 오언율시 7수로 나타난다. 이중 연작시는 12제 24수이고, 모두 2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sup>25)</sup> 손와의 즉흥시는 칠언율시의 비중이 약 8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칠언율시를 선호하는 시적 성향은 『손와유고』 수록 전체 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손와유고』에는 권1~5까지 시체별로 나누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권1에는 칠언절구 46제, 권2~4에는 칠언율시 553제, 권5에는 오언시 83제가 수록되어 있어 손와가 칠언율시를 매우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칠언율시는 절구에 비해 형식적으로 까다로운 작법을 요구하므로 칠언율시가 많다는 것은 시를 짓는 것이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즉석에서 바로 시를 지어야 하는 즉흥시가 대부분 칠언율시로 창작되었다는 점은 손와가 詩作에 매우 능숙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6)</sup>

### III. 손와 즉흥시의 세계

즉흥시는 대상에 의해 촉발된 즉흥적인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때 분출된 감정은 평소 작가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생각과 정서가 즉자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25) <滯雨口占 三首>의 경우 제목에 3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남아있는 시는 2수밖에 없어 2수 연작시로 분류하였다.

26) 즉흥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윤재환 (2013), 龍洲 趙綱의 詩文學 世界-卽興詩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54와 유진희 (2019),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즉흥시(卽興詩) 연구(研究), 민족문화연구, 82 등 2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경의 즉흥시는 21제 22수로 이중 칠언율시는 10제 10수로 전체 즉흥시의 약 50% 정도이다. 또한 박순의 즉흥시는 51제 68수로 이중 절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칠언율시가 전체 즉흥시의 86%를 차지하는 손와의 즉흥시에 대비된다.

27) 유진희 (2019), 앞의 논문, 219.

특히 ‘구호’류의 즉흥시는 의도적인 목적성 없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자신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읊는다는 점에서 당시 작가의 느낀 진솔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와의 즉흥시에는 평소 손와의 내면에 내재된 생각과 정서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손와의 시세계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손와는 자신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순간의 감정과 현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형상화 기법을 사용하여 즉흥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손와 즉흥시의 정서 양상과 형상화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즉흥시의 정서 양상

손와는 40여 년간의 관직 생활 동안 내·외직을 골고루 수행하며 다양한 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이때 마주한 산수 자연의 다양한 풍광들은 詩心を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고 여기에서 촉발된 감정들을 즉흥시로 진솔하게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손와 즉흥시에 나타난 정서 양상을 ‘閑情의 吟味를 통한 마음의 淨化’와 ‘詩興을 통한 적극적인 遊興의 발현’, 그리고 ‘宦路에 대한 懷疑와 自歎’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閑情의 吟味를 통한 마음의 淨化

손와는 틈이 날 때마다 산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한정을 음미하는 가운데 마음속 번뇌와 기심 등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정화하곤 하였다. 다음의 시에서 이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曹溪靜散地  
匹馬遠相尋  
霜淺巖楓早

조계는 조용하고 한적한 땅이라  
필마로 멀리서도 서로 찾아드네  
서리 얇은 바위 사이 단풍 일찍 들고

山回石逕深  
 踈窓宜月色  
 虛閣但秋陰  
 靜聽松風卧  
 冷然洗我心

산을 휘도는 돌길이 깊네  
 성근 창엔 달빛만 있고  
 텅 빈 누각엔 가을 구름 뿐이네  
 솔바람 소리 누워서 고요히 들으니  
 시원하게 내 마음이 씻기네<sup>28)</sup>

濯足移時坐釣磯  
 訪真行色不嫌遲  
 閑從局上論成敗  
 懶向塵間說是非  
 甃寺磬鍾和月聽  
 漢山蒼翠隔雲知  
 寄言鷗鷺休相怕  
 我亦江湖已忘機

잠시 발을 담그고 낚시터에 앉아 있으니  
 진경을 찾아가는 행색 더디어도 싫지 않고  
 바둑판 위의 성패를 논하니 한가롭고  
 티끌세상의 시비를 말하기 싫어지네  
 벽사의 경쇠와 종소리 달에 화답하듯 들리고  
 한산의 푸른 이내 구름 너머 나타나네  
 갈매기와 백로에게 부끄러워 말라 전하니  
 나 또한 강호에서 벌써 기심을 잊었다네<sup>29)</sup>

위의 시는 <曹溪秋夜口號>와 <楊江舟中口占>이다. 첫 번째 시는 1680년(숙종 6) 가을에 曹溪를 방문하고 지은 시이다. 조계는 북한산성 동문 밖에 있는 曹溪洞으로 曹溪寺가 있는 곳이다. 칠언율시 <曹溪秋夜口號>도 이때 함께 지은 시인데 여기에는 ‘庚申 秋閏八月十三日’이라는 각주가 병기되어 있어 창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손외는 1680년(숙종 6) 9월에 별시문과에 급제 했는데<sup>30)</sup> 이 시는 과거 시험 직전에 조계를 방문하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가을이 깊이 든 한적한 조계의 정경 속에서 한정을 음미하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함련과 경련은 조계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최대한 절제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함련은 조계가 산길을 구비구비 돌아가야 하는 깊은 산 속에 있어 추위가 빨리 찾아오고 가을이 일찍 드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련은 성근 창과 텅 빈 누각에 달빛과 가을 구름만을 등장시키고 있어 조계가 인적이 드문 곳임을 강조하고 있

28) 『損齋遺稿』 卷5, <曹溪秋夜口號>.

29) 『損齋遺稿』 卷2, <楊江舟中口占>.

30) 『肅宗實錄』 卷10, 숙종 6년(1680년), 9월 18일(계유), 2번째 기사.

다. 이와같은 정경은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어 고요함과 한적함의 깊이를 더하는 배경이 된다. 한밤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솔바람 소리는 잡념을 사라지게 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두 번째 시는 1682년(숙종 8) 5월 淸風으로 가는 배 안에서 지은 시이다. 청풍은 충북 제천의 옛 이름이고 楊江은 驪江의 하류 지역으로 경기도 양평 일대의 남한강을 말한다. 손와는 큰형 崔錫普(1640~1690)와 조카인 崔昌憲(1662~?)과 함께 조부인 최명길의 迎筵宴을 열기 위해 청풍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당시 손와의 생부인 崔後亮(1616~1693)이 청풍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 시에는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이 시 전체에 가득하다. 수련은 청풍으로 가는 여정에 잠시 배가 멈춘 사이 발을 담그고 느긋하게 閑情을 누리는 여유를 보여준다. 한편에서도 바둑을 두면서 한가로움을 좇고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한가로운 풍경이 이어진다.

경련은 시인이 현재 있는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것이다. 巖寺는 여주 신륵사의 별칭으로 시인이 있는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절에서 들려오는 경쇠 소리와 종소리와 푸른 이내가 긴 산은 경건한 마음과 함께 속세의 번뇌를 씻어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한다. 청각과 시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이내가 오르고 경쇠와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의 정경을 포착하여 생생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미련은 『鷗鷺忘機』의 고사<sup>31)</sup>를 들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其二

縹緗林靄露碧峰  
石門林松鎖千重  
雲深谷鳥移却喚

하늘은 아득하고 푸른 봉우리 이슬에 젖고  
석문은 삼나무와 소나무에 천 겹으로 잠겨있는데  
구름 깊은 골짜기의 새는 한참을 울어대고

31) 『鷗鷺忘機』는 『열자』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속세를 떠나 담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백여 마리가 넘는 갈매기와 노닐던 사람이 갈매기 한 마리를 잡아 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다음날 바닷가로 나가자 갈매기들이 욕심을 알아채고 곁에 오지 않았다는 고사이다.

春盡林花滿意濃  
 赴壑水聲澄物累  
 當溪槐影掃塵蹤  
 客來半日仍關雨  
 一枕清風午睡慵

봄 다한 숲의 꽃은 만발하여 무르익었네  
 골짜기 달리는 물소리에 얽매었던 괴로움 맑아지고  
 오솔길에 회나무 그림자 속세의 흔적을 쓸어내네  
 나그네 와서 반나절이나 비에 묶이니  
 베게 베고 맑은 바람 속 낮잠 자며 게으름 피우네<sup>32)</sup>

이 시는 <滯雨口占 三首>로 조카인 崔昌大(1669~1720)와 수창하며 지은 연작시 중 두 번째 시이다. 이 시의 시제에는 3수로 되어 있으나 2수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손와는 1691년 5월 조카인 최창대와 함께 북한산, 도봉산 지역의 명소를 탐방하였는데 이 시는 이때 지어진 것이다.<sup>33)</sup> 당시 손와는 고양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 시는 시창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비온 뒤 도봉산의 늦봄 풍경을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비로 인해 촉촉하게 젖은 산봉우리와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회룡사, 그리고 늦봄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오솔길에 드리워진 회나무 그림자는 비 내린 산속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또한 골짜기에서 들리는 산새의 울음소리와 내린 비에 불어난 계곡의 거친 물소리는 시창각을 동시에 자극시켜 시인이 보고 느낀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수련의 石門은 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回龍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 바로 앞에 편차된 시가 <回龍寺 次

32) 『撰齋遺稿』 卷3, <滯雨口占>.

33) 『손와유고』 권5에 수록된 <南麓曲宴賦詩>의 并序에는 신축년(1691년) 5월 상순에 조카 창대를 데리고 수락산에 은거하고 있는 朴世堂과 尹拯을 방문하고 도방산 일대를 유람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손와와 최창대는 이때 회운암, 약천서실, 도봉서원 등을 탐방하였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시냇물이 폭포를 이룰 정도였다. 다음날 손와가 조계에 도착했을 때 물살이 더욱 거칠어지고 승경이 더욱 빼어나져 걸음을 멈추고 말을 씻으며 해가 지도록 시를 읊조렸다[辛丑五月上旬, 携家侄昌大, 出上東門, 拜西溪杖於水落, 仍拜明齋尹丈, 嘯時籟泉, 上亡友士安昆仲丘墓, 暮向晦雲掩留宿, 上人碧虛出見, 十二日, 凌晨發行, 入藥泉書室, 轉向回龍寺, 訪泉石之勝, 途中逢喜雨, 歷入道峯書院, 朴同年道彥來訪叙話, 是日, 大雨終日, 溪流灑肥, 十二日朝發行, 巳時到曹溪, 瀑流大漲, 爽氣逼人, 與前日所見, 頓覺殊絕, 老僧環坐, 謂瀑水之勝, 近來所未有云, 仍坐石上, 濯足吟詩, 不知日之西也.]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의 일정을 살펴볼 수 있다.

前詩>인데 이 시 역시 최창대와 함께 수창한 시이다.

경련에서 시인은 계곡의 세찬 물소리와 화나무의 그림자가 마음의 괴로움과 속세의 흔적을 씻어준다고 하였다. 이 시의 창작 시기인 1691년은 1690년(숙종 15)에 일어난 기사환국으로 남인계열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노·소론의 서인계열이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때였다. 소론계열인 손와 역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손와는 기사환국 이전 정언·교리·부수찬 등 중앙의 요직을 맡고 있었으나 기사환국 이후에는 양천현령·고양군수 등의 외직을 전전하게 된다. 경련의 ‘物累’·‘塵蹤’은 현재 손와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 환로에 대한 회의 등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련은 시원한 물소리에 속세의 괴로움과 흔적을 씻어버리고 정화된 마음으로 한가로이 낮잠을 청하며 빗속의 정취를 느긋하게 즐기는 시인의 담담한 마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유람이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괴로움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찾고자 하는 데 本意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 2) 詩興을 통한 적극적인 遊興의 발현

손와는 산수 자연을 찾아다니며 오르는 흥취를 시를 짓는 詩興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손와가 흥이 오르면 언제 어디서나 즉자적으로 시를 지어 즐기는 시인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한정의 음미를 통한 마음의 정화’가 조용히 자연을 감상하고 내적으로 음미하는 수렴적인 양상이라면 ‘시흥을 통한 적극적인 유흥의 발현’은 산수 자연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유람의 흥취를 밖으로 발산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洞府陰森淑景澄  
客來携酒坐松亭  
銀河倒瀉三千丈  
錦岬平鋪九疊屏

동부의 울창한 숲 화장한 봄의 경치로 깨끗해  
나그네 와서 술잔 쥐고 송정에 앉으니  
은하수가 거꾸로 쏟아져 삼천 장이나 되는 듯하고  
비단 산봉우리 널리 펼쳐진 구첩 병풍같네

爽氣披襟塵慮淨  
驚濤八面醉魂醒  
平生快意今宵最  
不厭金筇步步停

상쾌한 기운이 가슴을 여니 속된 생각 깨끗해지고  
거친 파도가 팔방으로 이니 취한 혼도 깨네  
평생의 유쾌한 마음 오늘 밤 최고이고  
시 읊기 싫지 않아 걸음마다 멈추네<sup>34)</sup>

이 시는 <觀瀑壺口呼>로 1690년 개경에 잠시 머물 때 관폭대에서 폭포를 전망하며 지은 시이다. 손와는 들째 형 최석정이 1690년 황해도 연안부사로 부임하게 되자 함께 따라가 연안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이 시는 연안으로 가는 도중 개경에 잠시 머물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바로 앞에는 <朝過朴淵洞口>가 배치되어 있어 이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포가 박연폭포임을 알 수 있다.

수련과 함련은 관폭대 주변의 경치와 박연폭포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다. ‘洞府’는 도교에서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관폭대와 박연폭포 그리고 주변을 선계로 상징하여 신비로움을 주고 있다. 박연폭포의 물줄기를 은하수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 길이를 삼천 장으로 묘사함으로써 박연폭포의 경관을 신비롭고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구첩 병풍에 비유함으로써 박연폭포 주변의 산세가 매우 넓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비유법의 사용은 독자들이 주변의 경관을 쉽게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는 시적 장치가 된다.

경련과 미련은 관폭대에서 경관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상을 그리고 있다. ‘披襟’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가슴을 열어 제친다는 뜻으로 宋玉의 <風賦>에서 유래한 것이다.<sup>35)</sup>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시방으로 멀리서 일렁이는 거친 파도는 시인의 속된 생각을 정화시키고 취한 혼을 깨우는 청량제

34) 『損齋遺稿』 卷3, <觀瀑壺口呼>.

35) 송옥은 초나라 굴원의 제자이다. 초나라 양왕이 난대에서 노닐 때 송옥이 <풍부>를 지었는데 서두에 “초나라 襄王이 蘭臺의 궁전에서 노닐 때 송옥과 景差가 모시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자 왕이 가슴을 열어 제치고披襟 ‘상쾌하다, 바람이여. 과인이나 庶人이나 똑같이 맞는구나.[楚襄王遊於蘭臺之高, 宋玉景差侍, 有風颯然而至, 王乃披襟而當之, 曰: ‘快哉此風寡人庶人共者邪!’]”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역할을 한다. 지금 관폭대에서 즐기는 유쾌한 마음이 평생의 최고이고, 걸을 때마다 마주한 풍경들이 모두 絶景들이라 발걸음을 멈추고 시를 읊조릴 수밖에 없다는 시인의 고백은 詩興을 진심으로 즐기는 면모를 잘 보여준다.

行盡丹崖又碧峯  
上方歸路幾千重  
楓林奪目紅全纈  
澗水經心綠政濃  
是處地曾藏秘境  
此來天若待閑蹤  
秋山面面添奇勝  
隨意吟筇步步慵

길 다한 붉은 벼랑에 다시 푸른 봉우리  
상방으로 가는 길 몇천 겹인가  
풍림에 눈길 빼앗기니 붉은빛이 온통 아른거리고  
시냇물에 마음을 주니 푸른빛이 정말 무르익었는데  
이곳의 땅은 일찍이 비경을 숨겨 놓았는데  
여기오니 하늘은 마치 한가한 발자취 기다린듯하네  
가을산 면면이 빼어난 경치 더하니  
마음따라 시 읊는 걸음마다 느긋하네<sup>36)</sup>

이 시는 <東鶴寺口占>으로 1697년(숙종 22) 가을 공주의 동학사를 방문하고 지은 시이다. 동학사는 충남 공주 계룡산에 있는 절로 東鶴寺라고도 불린다. 손와는 당시 沃川 郡守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 시 이외에도 옥천 주변의 綵霞亭 · 喚仙樓 · 福泉菴 · 四松亭 등을 탐방하고 다수의 시를 지었다.<sup>37)</sup>

이 시는 단풍에 물든 동학사 주변의 풍경을 색채감이 돋보이는 시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가을 풍경에 빠져 시를 짓는 시인의 감흥을 그리고 있다. 수련은 동학사의 위치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애와 벽봉은 동학사가 매우 높은 곳에 있음을 보여주며, 동학사가 몇천 겹을 돌아갈 만큼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동학사가 속세에서 벗어난 청정 공간임을 의미한다. 합련은 동학사를 가면서 본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온통 붉게 물든 산과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뺨긴 눈과 마음을 紅綠의 색채 대비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경련과 미련은 아름다운 가을 산의 정취에 흠뻑 빠져 시를 지으며 감흥을 더하는 시인의 흥취를 잘 보여준다.

36) 『損窩遺稿』 卷3, <東鶴寺口占>.

37) 『損窩遺稿』 卷3, <綵霞亭偶吟> · <喚仙樓感吟 用前韻> · <福泉菴夜坐口占> · <四松亭感吟>.

嶽色春俱晚	산빛은 봄과 함께 저물어가고
泉聲意共遲	샘소리는 마음과 함께 천천히 흐르니
排愁從酒凸	시름을 몰아내려 술을 좇았고
耽賞任筇移	경치를 탐하여 지팡이 가는 대로 다녔지
好雨初晴後	단비 막 개인 뒤에도
濃花未落時	무르익은 꽃 아직 지지 않은 때이니
佳期那易得	좋은 계절 어찌 쉽게 얻겠는가
隨處有新詩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시가 있네 <sup>38)</sup>

이 시는 <蕩春臺口號> 2수 중 첫 번째 시로 1697년 둘째 형인 최석정이 벽제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탕춘대는 1504년(연산군 10) 藏義門 밖에 지었던 건물로 연산군이 이곳에서 자주 연회를 열었다. 탕춘대 주변은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흐르고 소나무가 운치를 이루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던 곳으로 유람객들이 끊이지 않았던 勝景이었다. 탕춘대와 같은 누정은 勝遊와 다양한 詩會가 이루어지던 遊賞공간이자 시 창작의 공간이었다.<sup>39)</sup>

이 시는 봄이 한창인 탕춘대의 풍경과 그 속에서 마음껏 다니며 저물어가는 늦봄을 즐기는 시인의 흥취가 담뱃 담겨있다.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환로 속에서 시름을 잊으려 술도 마셔 보았지만 시인의 근심을 덜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시를 짓는 것이라는 시인의 진심을 보여준다.

### 3) 宦路에 대한 懷疑와 自歎

손와는 40년 이상 관직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관료로서의 생활은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관직에 있으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은 손와의 내면세계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손와는 1680년 출사한 이후 당파 간의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국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 부침을 겪었고 이와 같

38) 『損齋遺稿』 卷5, <蕩春臺口號>.

39) 김묘정 (2019). 소북(小北) 문인집단의 지식 공간 양상과 그 의미-별서(別墅) 시회(詩會)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6, 77-112.; 박순 (2020). 한국 누정(樓亭)에 대한 위키백과 편찬 방안 연구-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의 편찬 방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20, 87-121.

은 상황은 환로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1684년 사간원 정언이었던 손와는 당시 전권을 잡고 있던 이조판서 李翊과 金煥의 방자함을 탄핵하여 파직하라는 소장을 올렸다가 오히려 削去仕版<sup>40)</sup> 당하고 파직되었다.<sup>41)</sup> 이후 韓構, 任相元 등이 손와를 구제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1686년 7월 서북 지역의 사정을 살피는 일을 맡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sup>42)</sup> 평안도 암행어사로 나갔다. 손와는 벼슬에서 물러나 잠시 한거하던 시기와 서북지역 시찰 시기에 다수의 즉흥시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환로에 대한 회의와 자탄의 심정을 담은 시가 많이 나타난다. 순간적으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율조림은 평소 작가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진심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節屆清明春事遲	절기는 청명인데 봄이 늦어져
水邊楊柳乍依依	물가의 수양버들 이제야 한들거리고
剖成算道泉源活	대흙통 길을 쪼개서 만드니 샘물이 팔팔 흐르고
燒盡山田土脉肥	산의 밭을 다 태우니 땅이 비옥해지네
一隊亂鴉分野色	한 떼의 어지러운 까마귀 들판의 색깔과 구분되고
百般啼鳥弄天機	갖가지 새소리 천기를 희롱하는데
明朝又向紅塵裡	내일 아침 붉은 먼지 속으로 다시 향하니
愧殺江湖未拂衣	강호에 부끄럽게 아직 옷을 털지 못했네 <sup>43)</sup>

이 시는 <楊山道中口號>으로 1684년 탄핵을 당해 내쳐진 후 1686년 7월 관서안검어사로 나가기 전까지 잠시 한거할 때 지은 시로 보인다. 양산은 경기도 양주의 별칭이다. 이 시는 楊山으로 가면서 본 풍경과 은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탄식하는 모습을 담고

40) 削去仕版은 관원의 장적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처음의 벼슬 이후 거쳤던 모든 관작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1) 『肅宗實錄』 卷15, 숙종 10년(1684년) 9월 21일(갑신), 1번째 기사.

42)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1686년) 7월 7일(기축), 2번째 기사, “分遣崔奎瑞·崔錫恒·洪受濇于西北江邊 使之廉察採蓼人及邊上事情”

43) 『損窩遺稿』 卷2, <楊山道中口號>.

있다.

수련에서 경련까지는 양산 가는 도중에 본 봄 풍경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청명은 양력 4월 5일~6일 무렵으로 본격적으로 봄이 무르익기 시작하여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는 봄이 늦게 찾아왔는지 이제야 벼들이 한들거리기 시작하는 물가의 정경과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 이어 붙인 흙통에 샘물이 팔팔 흐르고 산에 있는 밭을 태워 농사를 준비하는 광경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경련은 봄이 되어 푸른빛을 띠는 들판과 하늘을 나는 까마귀 떼의 검은 색을 대비시켜 더욱 완연해진 봄 풍경을 포착하여 그리고 있다.

하지만 미련에서 시인은 봄을 맞아 생기가 도는 자연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벼슬에 얽매어 다시 세상 속으로 향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喚渡斜陽立小汀  
隔江風色送泠泠  
千里水霧籠沙白  
一抹炊烟繞樹青  
蟬噪晚林供漫興  
雨歸秋逕趁微醒  
此心自笑爲形役  
盡日行行不暫停

사공을 부르며 저물녘 작은 물가에 서 있으니  
강 건너 바람이 서늘함을 보내오네  
천 리의 물안개 모래 언덕 위로 하얗고  
한 줄기 밥 짓는 연기 숲을 돌며 푸르네  
매미 우는 저물녘 숲은 괜한 흥취 일게 하고  
비 맞고 돌아가는 가을 오솔길에 취기 남아있네  
이 마음 형체의 부림 삼았음을 스스로 비웃으며  
하루종일 가고 가며 잠시도 멈추지 못하네<sup>44)</sup>

夜來霜氣襲征衣  
久客殊方尚未歸  
邊堡暮聲山雨急  
戍樓秋色朔雲飛  
侵尋旅館時將晏  
寥落關河雁亦稀  
堪笑半生迷出處

밤이 오니 서리기운 군복에 엄습하는데  
오래된 나그네 이역에서 아직 돌아가지 못하네  
변방의 보에 저물녘 소리 들리고 산비 세찬데  
수루에 가을빛 들고 북방의 구름 날아가네  
여관에 이르는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관하는 쓸쓸하고 기러기 또한 드무네  
우습구나 반평생 출처를 헤매이니

44) 『損齋遺稿』 卷2, <渡洛難二號>.

十年江海宿盟違

십 년 강해의 오랜 맹세 어긋났구나<sup>45)</sup>

위의 시들은 <渡猪灘口號>·<如海峴口占>으로 1686년 서북지역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서북지역을 시찰하던 때에 지은 시이다. 위의 시는 시간원 정언으로 바른말을 했다가 오히려 탄핵당하고 벼슬에서 밀려났다가 2년 만에 겨우 조정으로 돌아온 당시 손와의 내적 심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환로에 대한 강한 회의와 은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 짙게 배어있다.

첫 번째 시는 저물녘 猪灘 주변의 풍경과 畝路에서 오는 고단함을 담고 있다. 저탄은 황해도 금천에 있는 예성강의 지류이다. 수련은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그리고 있고, 함련은 저탄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물안개가 뿌연게 서린 모래 언덕은 수평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숲 주변에서 하늘로 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수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구도가 잘 잡힌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形役’은 정신이 육신의 부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外物에 의해 자신의 의지가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이미 스스로 마음으로 형체의 부림을 삼았으니 어찌 실의에 빠져 홀로 슬퍼하겠는가(既自以心爲形役 奚惆悵而獨悲)”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미련에서 귀거래하지 못하고 형역에 매여 있는 자신을 스스로 비웃는 모습은 평소 시인의 마음속에 있던 내적 갈등의 일면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는 여해현을 시찰하고 일어나는 감회를 담은 시이다. 여해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평안도의 변방 지역으로 짐작된다. 변새의 스산한 풍경과 함께 먼 이역 땅에서 일어나는 객수가 주요 시상을 이루고 있다. 수련은 계절이 바뀌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객수를 그리고 있고, 함련은 스산한 변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雨急’·‘雲飛’ 등의 시어는 변새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 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45) 『損窩遺稿』 卷2, <如海峴口占>.

부분은 미련이다. 出處를 반복하며 은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탄식은 쓸쓸한 여운을 남긴다.

## 2. 즉흥시의 형상화 기법

즉흥시 창작에 있어 작가가 느낀 즉흥적인 감정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가가 있는 현장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것도 창작의 주요 관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구호’류의 즉흥시는 작가가 애초에 느꼈던 감정과 현장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필진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호’류의 경우 초고 없이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조리는 특성상 어려운 용어나 용사를 사용하기보다 평이한 시어를 선택해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sup>46)</sup> 손와는 평이한 언어와 시청각 이미지 그리고 동적 이미지의 시어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장면과 느낀 감회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여 實景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1) 시청각·동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한 현장감의 극대화 - 순간의 포착

즉흥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대상과 대상에 의해 촉발된 즉자적인 감정의 표현일 것이다. 특히 즉자적인 감정이 일어났던 순간을 포착하여 이를 묘사하는 것은 작가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손와는 눈에 보이는 여러 장면 중 감흥을 일으켰던 순간을 포착하여 시청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하였다.

(가) 江雨欲來山翠重      강비 내리려는지 산의 이내 무거웠는데

46) 이명희 (2014). 월사 이정구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162.

- 渚禽飛去水烟輕      물새 날아가 버리고 물안개 가벼워지네<sup>47)</sup>
- (나) 山月入窓光破碎      산달이 창에 드니 달빛이 산산이 부서지고  
水雲籠樹滴霏微      물안개 나무에 적시니 물방울 부슬거리네<sup>48)</sup>
- (다) 驢背斷雲山遠近      나귀 타니 조각구름 산에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鷺邊殘照樹晴陰      백로 주변의 저녁놀에 숲은 개였다가 어두워지네<sup>49)</sup>
- (라) 蛙兒閣閣淺塘開      개구리 개골개골 얇은 연못에서 울어대고  
鳩婦雍雍深樹鳴      암비둘기 구구구구 깊은 숲에서 울어대네<sup>50)</sup>
- (마) 潮生島嶼工吞吐      이는 파도는 섬들을 삼켰다 뱉었다 하고  
風定帆檣任卷舒      바람에 돛은 제멋대로 말렸다 펴졌다 하네<sup>51)</sup>

(가)는 <觀水軒口占>의 함련 부분으로 1681년 청풍군수로 재임 중인 생부 최후량을 빚기 위해 청풍에 머물 때 지은 시이다. 이 시는 관수헌에 올라 바라본 정경과 감회를 담고 있는데 관수헌은 청풍의 동헌으로 주변에 청풍호수가 보인다. 함련은 바로 관수헌에서 바라본 청풍호수와 주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수련은 구름이 끼었다가 걷히고 한줄기 미풍이 부는 날씨를 서술하고 있는데 함련은 이와같은 날씨의 변화를 청풍호수 가에 낀 이내와 물안개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내와 물안개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람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비가 올 것처럼 산에 이내가

47) 『損窩遺稿』卷2, <觀水軒口占>: “半天雲日乍歸晴, 一陣微風滿樹青. 江雨欲來山翠重, 渚禽飛去水烟輕. 還慚夢筆才名甚, 唯喜仙區宿債贏. 惱盡敲炎當夜■, 入簾新月更多情.”

48) 『損窩遺稿』卷2, <秋夜口號>: “騷懷悄悄易生悲, 漫向燈前攬客衣. 山月入窓光破碎, 水雲籠樹滴霏微. 平生性癖緣窮瘦, 末路行藏與道違. 四壁忽聞虫語因, 夜深秋氣透寒帷.”

49) 『損窩遺稿』卷3, <水會洞口號> 九月二十六日 宋德章昌敏同行: “盤旋豈必在幽深, 卽此林丘便會心. 驢背斷雲山遠近, 鷺邊殘照樹晴陰. 埋頭漸覺拋餘事, 入手風烟付苦吟. 春日且須花鬪曼, 可能飛絮許重心.”

50) 『損窩遺稿』卷3, <雨中口占>: “簾幕風微暑氣清, 替香金鴨篆烟輕. 蛙兒閣閣淺塘開, 鳩婦雍雍深樹鳴. 曠昔繁華同夜壑, 至今凋察廢春耕. 踈慵亦忝居留重, 愧莫堪埃答聖明.”

51) 『損窩遺稿』卷4, <登聖城臺口占>: “高臺巒嶺近辰居, 按節今來百慮除. 地卽檀君營築後, 石應媧帝補天餘. 潮生島嶼工吞吐, 風定帆檣任卷舒. 悅若神遊瀛海上, 不煩修練已凌虛.”

잔뜩 끼었다가 다시 물안개가 열어지면서 날이 개는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重·經의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秋夜口號>의 함련 부분으로 1681년 청풍에 머물 때 지은 시이다. 이 시는 客懷가 전반적인 시상을 이루고 있는데 함련 부분은 현재 시인이 느끼고 있는 쓸쓸하고 처연한 심정을 담고 있다. 창에 비친 달빛과 물기운 젖은 나무에 맺힌 물방울은 시인이 본 객관적인 實景이다. 여기에 시인은 달빛과 물방울의 움직임을 ‘破碎’과 ‘霏微’의 시어를 사용하여 조용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산산히 흩어지는 순간과 나무에 맺힌 물방울이 부슬거리며 떨어지는 순간은 쓸쓸하고 울적한 시인의 심리를 대변하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는 <水會洞口號>의 함련 부분으로 1693년 9월26일 宋昌敏과 함께 수회동을 방문했을 때 지은 시이다. 수회동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경치가 매우 좋은 곳으로 생각된다. 이 시는 바쁜 공무를 잠시 뒤로 하고 봄이 한창인 수회동을 찾아 벗과 함께 春興을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귀를 타고 가면서 본 풍경들을 ‘遠近’, ‘晴陰’ 등 반대되는 시어를 사용해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 시인의 시선과 구름, 그리고 저녁놀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는 <雨中口占>의 함련 부분으로 1703년(숙종 29) 개성 유수로 부임하여 송도에 머물 때 지은 시이다. 손와는 개성 유수로 재임하면서 천마산·대흥사·박연폭포 등을 유람하고 시를 지었다. 이 시의 수련은 바람조차 희미한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를 향로의 연기로 표현하고 있다. 비가 내리자 연못과 숲에서 울어대는 개구리와 비둘기 울음소리는 더위를 식히는 반가운 소리일 것이다. 함련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개구리와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강조함으로써 마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閣閣’·‘雍雍’은 개구리와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음차한 것으로 현장감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마)는 <登觀城臺口占> 2수 중 2번째 시의 경련 부분으로 1716년(숙종 42) 강화 유수 재임시 참성대에 올라 지은 시이다. 참성대는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있는 누대로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sup>52)</sup> 이 시는 참성대에 올라 주변을 바라본 장관과 이에 대한 장쾌한 감회를 그리고 있다. 예로부터 강화도 앞 바다는 물살이 세고 거칠기로 유명한 곳이다. 손와는 강화도의 거친 바다 물결이 실새 없이 들어왔다 나가며 섬들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장면과 바람에 펄럭이며 말렸다가 펴졌다 하는 돛대의 움직임은 포착하여 역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실감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손와는 즉흥적인 감흥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와 움직임을 돋보이게 하는 시어를 적극 활용하여 즉흥시가 지닌 현장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 3.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 현장의 묘사

손와의 즉흥시는 어려운 고사나 전고를 사용하기보다 평이한 시어와 賦·比·興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의 實景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부·비·흥은 『시경』에 서술된 수사법으로 賦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고, 比는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고, 興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한 것을 말한다. 비와 흥은 현재의 직유법, 의인법, 은유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先景後情’이라는 한시의 시작법상 수련과 함련은 풍경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손와는 수련에 주로 작가가 있는 현장이나 상황을 배치하고 이를 직접 서술하는 부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함련은 비·흥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참성대에는 1717년 강화유수였던 최석항이 참성대를 중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重修(인천시 사적 제136호)가 남아있다. 중수비에는 강화도와 마니산에 대한 소개와 참성단의 유래, 그리고 무너진 참성대를 다시 세우는 이유 등이 적혀있다.

- (가) 一帶山河箕子都 일대의 산하가 기자의 도읍지이고  
 古來开辟瀟名區 옛부터 빼어난 경치로 명승을 차지했네  
 城樓縹緲凌霄漢 아득한 성루는 높은 하늘을 넘어설 듯하고  
 邑屋參差展畫圖 들쭉날쭉한 마을의 집은 그림처럼 펼쳐졌네<sup>53)</sup>
- (나) 節屆深秋天氣晴 절기는 깊은 가을이라 날씨도 맑아  
 訪真歸路一筇輕 진경을 찾아가는 길 지팡이 하나로 가볍네  
 霜楓爛映羅裙色 서리 맞은 단풍 비단치마 빛갈처럼 찬란히 비치고  
 風澗靑和玉笛聲 시냇가 바람 옥피리 소리처럼 맑고 온화하네<sup>54)</sup>
- (다) 高會轅門靜塞氛 군문의 좋은 모임 있어 변방의 기운도 고요하고  
 森森畫戟兩邊分 화려한 창들이 뺨뺨하게 양쪽 가에 나뉘어 섰네  
 轟厖鼓角遙翻海 고각소리 요란하니 아득한 바다도 뒤집힐 듯하고  
 縹緲笙歌半入雲 생황 노래 아득하니 반쯤 구름에 들어온 듯하네<sup>55)</sup>
- (라) 近峽經寒不放春 가까운 골짜기 추위 지났어도 봄 같지 않았는데  
 雨餘光景夜來新 비 내린 뒤 풍경 밤이 되니 새로워지네  
 山腰罷霧濃收黛 안개 걷힌 산기슭은 짙은 눈썹 같고  
 水面生風細蹙鱗 바람이 이는 수면은 자잘한 비늘 같네<sup>56)</sup>

위에 인용한 시구들은 칠언율시의 수련과 함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가)는 <過箕城口占>의 수련과 함련 부분이다. 이 시는 1686년 관서안경여사 시절 箕城 평양을 지나며 지은 것으로 기성의 화려하고 변화한 풍경과 여기에 감탄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수련에서는 기성이 箕子가 세웠다는 기자조선의 도읍지였음을 서술하고, 함련에서는 기성의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성루의 크고 높은 모습을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비유하여 강조하였고, 크고 작은 집들로 가득 찬 평양의 모습을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고 비유하

53) 『損齋遺稿』 卷2, <過箕城口占>.

54) 『損齋遺稿』 卷4, <香山萬瀑同口號>.

55) 『損齋遺稿』 卷4, <酒席口號 示座上諸公>.

56) 『損齋遺稿』 卷2, <沃川客館口占 贈主倅金汝韓> 名弘楨 三月十二日.

여 화려하고 변화한 모습을 강조하였다.

(나)는 <香山萬瀑同口號>의 수련과 함련 부분이다. 이 시는 1704년 가을에 지은 것으로 당시 손와는 평안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 시에는 바쁜 공무에도 잠시 짬을 내어 묘향산 만폭등을 찾아 질게 물든 가을의 풍경과 이를 만끽하는 유람의 흥취가 가득하다. 수련에는 묘향산을 찾아간 시간적 배경과 동기를 서술하였고, 함련에는 흥의 기법을 사용해 서리맞은 단풍나무와 시냇물 소리를 비단 차마와 옥피리 소리에 비유하여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묘향산의 가을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는 <酒南口號 示座上諸公>의 수련과 함련 부분이다. 이 시는 1705년 평안도 관찰사 재임 시 龜城의 威遠樓에서 열린 연회에서 지은 시이다. 이 시의 바로 앞에 편차된 시가 <龜城威遠樓 書贈主倅權使君>이므로 연회가 열린 장소가 평안도 구성의 위원루임을 알 수 있다. 수련은 연회가 열리는 장소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轉門’은 수레의 끝채를 마주 세워 문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兵營의 문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구성이 변방에 위치해 있음을 상징한다. ‘畫戟’은 아름답게 채색한 창으로 官府를 지키는 병졸들이 들고 있는 것이다. 화려하게 치장한 창을 든 병졸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함련은 ‘鼓角’과 ‘笙歌’의 연주를 통해 연회의 흥을 돋우는 장면을 비의 기법을 사용해 묘사하였다. 북과 뿔피리의 크고 강한 특유의 소리를 강조하여 느낌을 살리고 있다. 또한 생황 소리는 아득하게 들려 마치 구름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각 악기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이에 알맞은 비유를 들어 연회의 흥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

(라)는 <沃川客館口占, 贈主倅金汝幹>의 수련과 함련 부분이다. 이 시는 1689년(숙종 15) 湖西 京試官이 되어 호서 지역의 鄉試를 監試할 때 옥천군수인 金弘楨(1649~?)에게 준 시이다. 이 시는 3월 12일에 지었는데 수련에는 삼월에도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어 봄기운이 완연하지 않은 골짜기와 비가 내린

뒤 풍광의 변화함을 서술하였고, 함련에는 비가 그친 뒤 드러난 옥천객관 주변의 풍경을 흥의 기법을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손와는 안개가 걷힌 후 모습을 드러낸 산기슭을 여인의 짙은 눈썹에 비유하였고, 바람이 불자 강에 이는 잔잔한 물결을 물고기 비늘에 비유하여 자신이 본 광경을 독자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V. 결론

이상으로 손와 최석항의 즉흥시를 살펴보았다. 손와는 숙종과 경종 대 소론계열을 이끌던 핵심 인물로 1721년 신임사화를 주도하여 노론계열을 몰아내고 소론계열이 정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인해 손와는 사후 정권을 잡은 노론계열에 의해 삭탈관작 되고 고종때까지 여러 차례 관직의 추탈과 복직이 반복되는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 이와같은 정치적 행로 때문인지 그동안 손와는 정치가로서 인식되어 문인으로서의 면모는 전혀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손와 역시 당대 문명이 높았던 형 명곡 최석정, 조카 곤륜 최창대에 견줄 만큼 文名이 있었다. 손와의 문집 『손와유고』에는 675제 824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 시세계와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손와는 자주 주변의 산수와 명승지를 탐방하고 다수의 즉흥시를 지었다. 즉흥시는 시흥을 느낀 현장에서 보고 듣거나 느낀 감정을 卽自의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 시 형식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즉석에서 짓는다는 점에서 평소 작가가 생각하고 있던 내적 심상과 시적 역량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초고 없이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는 ‘口號’류는 현장성과 즉흥성이 가장 강한 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의도적인 목적성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읊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느낀 작가의 진솔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손와유고』에는 48제 60수의 즉흥시가 전하는데 시제면에서 94%에 이르

는 54수의 시가 ‘구호’류라는 특징을 보인다. 손와의 즉흥시 대부분이 초고 없이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읊는 ‘구호’류의 시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보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즉석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누군가의 급작스런 요청에도 운자나 운서없이 즉각적으로 시를 지어야 하는 ‘구호’류의 시를 능숙하게 지었다는 점은 손와가 수준급의 시작 능력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형식적인 면에서 손와의 즉흥시는 86%가 칠언율시로 창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순간적으로 시를 지어야 하는 즉흥시 대부분이 까다로운 형식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칠언율시로 창작되었다는 점은 손와가 능숙하게 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손와의 즉흥시에 담긴 정서를 세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속에서 閑靑을 음미하고 마음의 번뇌와 괴로움 등을 정화시키는 경우이고, 둘째는 산수 유람의 遊趣를 詩興을 통해 마음껏 발산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고단한 宦路에서 오는 懷疑와 은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직에 매여 있는 자신을 탄식하는 경우이다. 이와같은 정서의 양상은 즉흥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평소 손와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심상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시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정서의 일부와 이것이 발현된 시세계 일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흥시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성과 즉흥성의 강조와 표현은 즉흥시가 여느 시와 변별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손와는 즉흥시의 현장감과 즉흥성을 잘 살리기 위해 시청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착된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부·비·흥과 같은 수사법을 활용하여 생생한 현장감과 즉자적으로 일어나 감흥을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손와의 시세계 일면과 손와가 시작을 즐기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즉석에서 다양한

수사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능숙하게 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손와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손와의 시세계 전반과 시문학관 등을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주제어】** 손와 최석항, 즉흥시, 구호, 구점, 현장감, 형상화 기법

[참고문헌]

景宗實錄

김묘정 (2019). 소북(小北) 문인집단의 지식 공간 양상과 그 의미-별서(別墅) 시회(詩會)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6, 77-112.

박 순 (2020). 한국 누정(樓亭)에 대한 위키백과 편찬 방안 연구-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의 편찬 방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20, 87-121.

肅宗實錄

윤재환 (2013). 龍洲 趙綱의 詩文學 世界 - 卽興詩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54, 31-57.

윤재환 (2020). 損窩 崔錫恒 講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1, 77-108.

유명석 (2021). 손와(損窩) 최석항(崔錫恒)의 연구시(聯句詩) 연구(研究) -시회(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8-1, 127-155.

유진희 (2019).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즉흥시(卽興詩) 연구(研究). 민족문화연구, 82, 211-237.

유진희 (2021).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기행시 일고찰 -『손와유고(損窩遺稿)』 소재 곤륜시(昆侖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1, 민족어문학회, 97-121.

이명희 (2014). 월사 이정구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이석우 (1990). 月沙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崔鳴吉. 遲川集. 한국문집총간 89, 민족문화추진위.

崔錫鼎. 明谷集. 한국문집총간 153, 민족문화추진위.

崔錫恒. 損窩遺稿. 한국문집총간 169, 민족문화추진위.

崔昌大. 昆崙集. 한국문집총간 183, 민족문화추진위.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db <http://db.itkc.or.kr>

## [국문초록]

이 글은 損窩 崔錫亓(1654~1724)의 卽興詩를 살피고 그 양상을 고찰하여 시세계의 일면과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피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다. 즉흥시는 시흥을 느낀 현장에서 보고 듣거나 느낀 감정을 卽自的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 시 형식으로, 작가의 정서와 문학적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평소 작가가 생각하고 있던 내적 심상과 시적 역량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초고 없이 즉석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는 ‘口號’류의 즉흥시는 즉흥성과 현장성이 가장 강한 성향의 시제라고 할 수 있다. 손와의 즉흥시는 ‘구호’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즉흥시가 지닌 특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즉흥시 대부분이 형식적 제약이 까다로운 칠언율시로 창작되어 있어 손와가 시자에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손와 즉흥시의 정서 양상을 ‘閑情의 吟味를 통한 마음의 淨化’, ‘詩興을 통한 遊興의 발현’, ‘畝路에 대한 懷疑와 自歎’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즉흥시의 형상화 기법은 ‘시창각·동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한 현장감의 극대화’와 ‘다양한 비유법을 활용한 현장의 묘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손와의 시세계 일면과 손와가 시작을 즐기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즉석에서 다양한 수사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능숙하게 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mptu Poems of Sonwa (損窩)

Choi, Seok-Hang (崔錫恒)

-Focused on Guho(口號)" type poems-

Kim, Hyo-Joung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romptu poems of Sonwa Choi, Seok-hang (1654-1724) and examines aspects of his poetry and literary competence. Impromptu poetry is a form of poetry that has the characteristic of expressing emotions seen, heard, or felt on the spot where you felt Siheung, and it enables us to examine the poet's inner mind and poetic capabilities because the poet's emotions and literary capabilities are revealed intact.

Improvisation comes out of the mouth without any draft, so it can show the strongest sense of realism and impromptu speaking. Most of the improvisation of Sonwa ha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improvisation. In addition, most of Sonwa's improvisation poems were created as Chileonyulsi, which have many difficult formal restrictions, so we can guess his proficiency in writing poetry.

We will look into Sonwa's improvisation by dividing it into three aspects which are "purification of mind by relishing relaxation", "revelation of poetic excitement for entertainment," and "skepticism and grief to himself about his career at a government post."

In addition, we will look at how he maximized realism by using sensual images and how he described scenes by using various metaphorical methods.

Through this study, one side of Sonwa's poetry, which is not well known, is examined. Sonwa was active in enjoying poetry and expressing his feelings on the spot, so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spect of a poet with the ability to write poetry skillfully using various rhetoric.

**[Keywords]** Sonwa Choi Seok-hang, Impromptu poems, Gujeum, Guho, Sense of realism, Expressing technique.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6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3일

**【저자연락처】** tteuri5105@daum.net